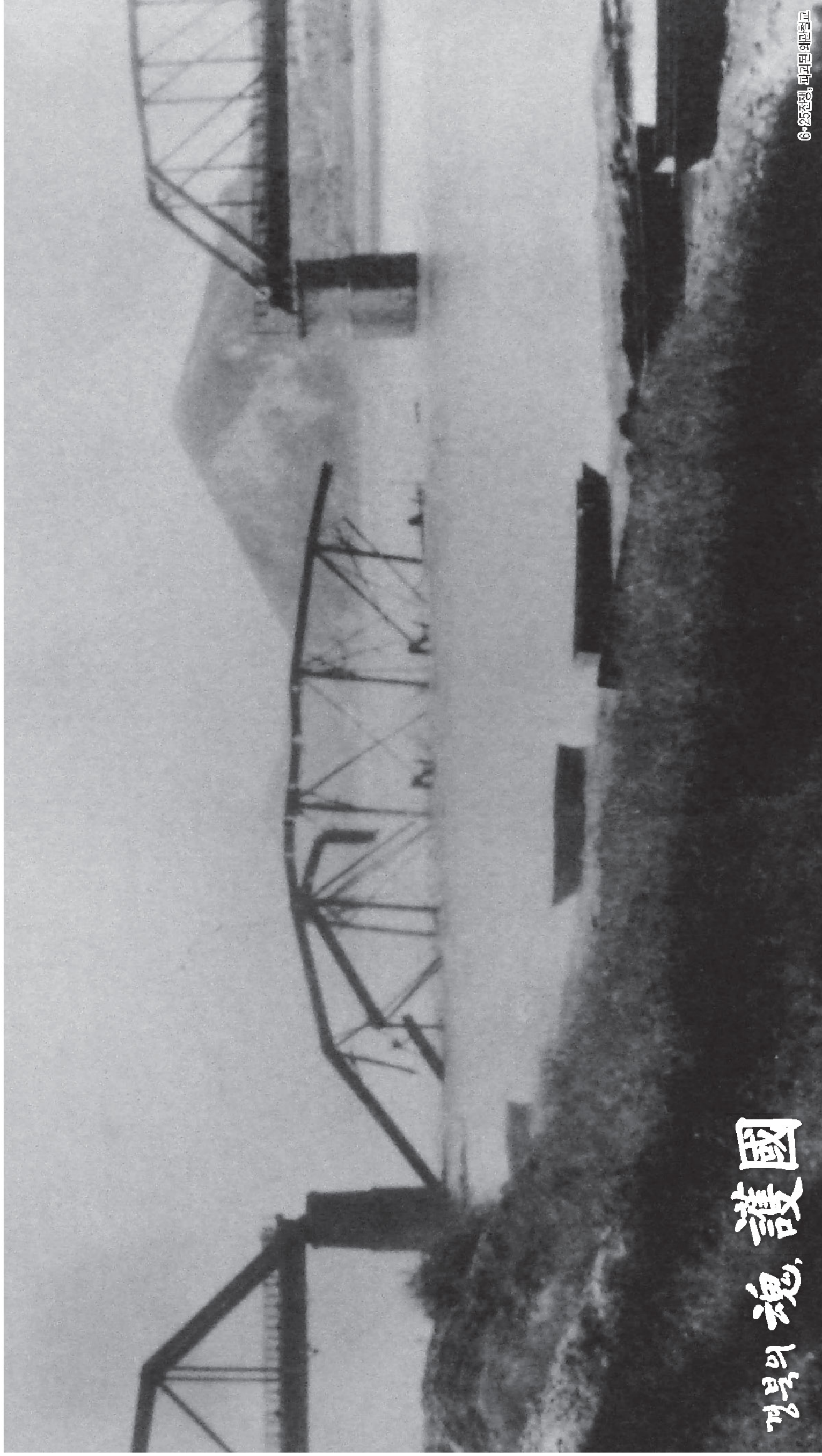


경상북도 의회소식



열린정권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http://council.gb.go.kr> 2013. 7.



경북의魂, 護國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경북도 조직개편 민생관련 조례안 처리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도정질문 가져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은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임정으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경상북도 조직개편을 비롯한 도민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경북도정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3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했다.

세부일정으로 6월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 집행부 각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장영석

(구미) 의원의 도정질문을 했다.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홍광중(교육), 김영기(청송), 황이주(울진), 박권현(청도) 의원의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있었다.

이어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3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심사,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이 이어졌다.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3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했으며, 6월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



에너지 절약 실천 결의대회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 후, 도의원들은 본관 현관에서 도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유도 및 생활 에너지 절감운동을 통해 산업에너지 충당에 동참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연구회 세미나 개최

창조도시 도입 통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토론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연구회(대표 박진현 의원)는 6월 27일 정책연구위원회 장세현 위원장과 연구단체 소속 도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혁신도시 성공과 창조도시의 시사점'을 주제로 도내 건설중인 도청 이전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 등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균형발전연구회 박진현 대표는 "도청이전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는 신도시 자체의 성공적

인 조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 신성장거점으로 그 발전역량을 주변지역으로 확대시켜 도내 전체를 아우르며 상생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의정
단신

에너지 절약 실천 결의 다져 '에너지 절약이 곧 지방의 경쟁력이다'

경북도의회는 10일 제26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맞춰 '에너지 절약 실천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결의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른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코자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결의대회로 진행됐다.

경북도의회는 '에너지 절약이 곧 지방의 경쟁력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300만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결의문을 통해 도의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번 정례회부터 베타이를 패지 않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간소한 복장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권장했으며 사무실 실내온도를 28℃ 이상 유지할 것 등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에너지절약에 모든 도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의회 현지 출장 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을 다짐했다.

송필각 의장은 "올해 여름은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지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난 극복에 앞장서 온 경북도가 국가 전력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

Contents

차례

제76호 지면안내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인물포커스 / 상임위원장 인터뷰	4면
정상진 농수산위원장, 장두옥 건설소방위원장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12면
도정질문	13면
주요 처리 안건 소개	14면
특별기고 / 건강칼럼	15면
함인석 경북대학교 총장 / 이제는 진짜 지방분권 시대다 김광훈 맥 이비인후과 원장 / 살인 진드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의정만평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 송 필 각 기획·편집 | 임 현 성, 남 정 해
편집인 | 이 태 암 발 행 처 | 경 상 북 도 의 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경상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1주년 결산

열린 의정구현, 복지증진 · 서민경제 안정 역점

도민에게 사랑과 믿음 주는 「소통중심 의회」 운영



경북도민 복리증진 역점

경상북도의회는 제9대 후반기 1주년(2012. 7. 1~2013. 6. 30)을 맞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히 해 왔다.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도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9대 후반기 1년 동안 경북도의회는 경북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는 평가속에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활동, 의정연구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보편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현장 주민여론 수렴 효율성 제고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총 8회 129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150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조례안 89건, 예·결산안 8건, 결의·건의안 11건, 동의·승인안 13

건, 기타안 29건을 처리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에는 총 4회 18명의 의원이 67건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또한 28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의원연구단체 활발한 활동 돋보여

제9대 경북도의회는 후반기 2년차를 맞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의원연구활동 활성화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자발적인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위해 균형발전 연구회, 사회안전망 연구회, 임업발전 연구회, 자연공원 생태 연구회 등 4개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 입법활동 전문성 제고에도 나섰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연구활동지원, 전문성 · 연구기능 강화

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국회의 의정연수원,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교육 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에 석·박사급 전문직을 보강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 지원활동을 수행토록 했다.

지역발전 해결 위해 중앙부처 건의

경상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는 도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가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건의(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및 정당, 중앙관계부처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상당부분 반영케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도정현안 해결, 특별위원회 가동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히 대응해 왔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또한 집행부인 경북도청과 교육청 등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지출은 물론,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도정의 모든 시책과 예산투자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토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송필각 의장, 강창희 국회의장 방문 현안사업 건의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건의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5월 27일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도청사 신축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했다.

이번 방문에서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진입도로 건설비 50%⇒70%지원확대 ▶옛 청사부지 국가귀속(매입)안 반영 등 전체사업 진행을 위한 선결

사항만이라도 우선 입법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필각 의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막대한 이전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책임지고 도청이전에 따른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미래경북의 '새천년 신도읍시대'를 여는 도청의 조속한 이전과 '녹색명품 행정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가 성공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상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FTA 파고 넘어 “희망찬 농어촌 만들기” 앞장서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예천군 2)

제9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FTA 개방화, 고품질 시대 현장에서 농어업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하고 농어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동화된 공동이용형 대형규모 벼 육묘공장 지원 방식을 2011년부터 소규모 벼 육묘공장 지원 방식을 제안하여 고품, 소규모 농가의 쌀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물론이고, 특히 지난해 한우가격 폭락이 공급과잉 있다고 판단하여 “미경산우 브랜드육성” 사업을 반영토록 노력하여 한우가격 안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농업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지난해 8월 농수산위원들과 농업관련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집행부 관계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경북농어업 농어촌발전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에 대비하여 농도인 경북이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정책이 미흡하여 중앙부처, 국회, 청와대에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촉구 결의안』과 『발농업직불제 대상품목

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을 송부하여 제도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경북농어업의 변신을 통하여 FTA 높은 파고에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북 농어업 청년리더 1만명 양성”, 경영혁신을 위한 “경북형 마을영농 시스템 구축”,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어업, 신명나는 농어촌 건설”에 농업인단체 및 농업관련 기관들과도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9대 후반기 도청이전특별위원으로 “명품도청” 건설을 위하여 현장을 수시 살펴보고 이전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함과 동시에 도청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도청 현안 문제점과 예천 지역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토록 전달하고 있다.

한편, 경북은 우수한 농업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과, 한우 등 다종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전국 1위 생산품목이 14개가 생산되고 있어 “대한민국 농어업의 축소판”인 농도 경북이 FTA 개방화 시대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농어민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대동맥 발판” 지역개발로 미래경북 기반 마련



장득묵 건설소방위원장(포항시 3)

“도민들의 요구가 절실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되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민들과 현장소통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도민 개개인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득묵 도의원(포항3)의 위원회 운영방침이다.

장득묵 위원장은 포항시의회 제2대 시의원, 제8대·제9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으로, 9대 전반기에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제9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포항~울진간 남북7축, 영일만 물류중심기지 교통망구축, 동해중·남부선, 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등으로 더 균형있고 편리하게 사통팔달의 경북 건설을 위해 도내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또한, 새천년 신도시를 여는 도청이전 명품 신도시조성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두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김천혁신도시 공사 마무리 등 경북발전의 확고한 기반마련을 위해 동료위원들과 현장 밀착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제8대, 제9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에 몸담으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지식 등은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추진력과 결단력이 빠른 위원장으로 통하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의원들간에도 소신있는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다.

장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임기 2회연임까지만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격론 끝에 개정하도록 관철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2013년 6월에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6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통과 시켰다.

이외에도, 민생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도청질문을 통해 도민의 아픔을 직접 해결하는 등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장위원장은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불합리한 건설산업 제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건설관계 일선기관·단체 등과 현장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개선방안 등 정책대안을 도정에 제시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

한편, 제9대 전반기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현대화사업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활발히 전개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예산 절감 및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의회운영 참여하는 도민, 소통하는 의회 실현



1.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2. 제8차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원전안전 종합대책 수립촉구 결의안 의결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규모제한 철폐 건의문 처리

회기 운영 계획 및 처리안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2013년 6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2회계연도 도의회 결산승인』과 『2013년도 도의회 추경예산』 및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개최 예정인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도의회 2012년도 결산은 127억 8천만원

중 123억 4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4억 32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

2013년도 추경은 기정예산 132억 99백만원보다 37백만원을 증액한 133억 36백만원으로 의결하였다. 금회 추경은 예산 효율화 및 절감 예산 방침에 따라 예산절감 부분은 절감토록 하고, 보수인상분만 일부 증액하는 등 예산을 아껴 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원전에 대한 신뢰회복, 시민안전 기여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1일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참석,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3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원전에 대한 신뢰회복과 시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원전안전 종합대책 수립촉구 결의안』과 광역도로사업에 국비지원 규모를 단위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규모제한 철폐 건의문』을 의결하여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

경북도의회사무처, 전력위기 극복 앞장

톡톡 튀는 작은 실천으로 직원들의 동참 이끌어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력위기 극복대책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10일 개최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에너지 절약 실천결의”를 다짐에 이어 의회사무처에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의회사무처에서는 회기 중에도 실내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키

로 하고 이미 사무실의 전등 50%를 줄였으며, 전등 스위치와 냉방기마다 절전과 가동시간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에는 자리를 비울 때 모니터 전원을 끄도록 “잠깐! 전기는 어떻게요?”라는 캐릭터를 개개인의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의회사무처 이두환 총무담당관



은 “자리를 비울 때 컴퓨터 모니터 전원만 꺼도 긴 형광램프(32W) 4개의 소등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직

원들의 솔선수범하는 작은 실천이 국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안전대책

■ 실리안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6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송필각 의장과 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 정부부지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오정석 경북경제진흥원장과 실리안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대표 브랜드인 '실리안'을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범어동에 소재한 실리안 공동 판매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대출이자 보전 확대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경제위원들은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술력과 품질 제고를 통해 도민과,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총력 원자력발전소 불안감 해소, 안전대책 점검

■ 예산집행의 효율성 당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새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한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과 도민이 행복한 선순환구조의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창조경제산업실'을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과 정원을 조정하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들은 결산안 심사 시 특별한 사유없이 미집행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 추경 시 삭감할 것을 요구하였고, 추경에 대하여는 신규계상된 사업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 이외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울릉경비대, 공군부대원 위문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방문, 국가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울릉경비대와 공군부대원을 위문하였으며 울릉군과 관광개발 및 울릉일주도로 사업현장, 울릉택시법인, 우산가스업체를 방문하여 도와 울릉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섬 조성 개발 추진현황 및 군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 현장점검

6월 26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원전 주요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사건 등으로 인한 도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하여 월성원자력본부와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원전관계자는 조작사건 관련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

발되지 않도록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도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향후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과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주변 지역민에게 알려 신뢰받을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되기를 당부했다. 🍀



1. 도내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현장점검
2.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실리안 22개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3. 영토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울릉경비대를 위문하고 격려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활동

국기 사랑·존중 정신 고취, 양성평등 제도적 근거 마련 '여성군자 장계향' 통한 여성의 삶과 지혜 배운다

조례·동의안, 추경안 등 심사 의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채옥주)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63회 정례회기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조례안』,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 조례안 7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각각 심사 의결했다.

또한 보건복지국, 행정지원국, 경북도립대학 등 7개 실·국, 직속기관 등에 대한 2013년 제1회 추경 편성예산안 2조 245억원 및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이번회기에 심사한 안건은 경북도의 주요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에서의 양성평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지정책 기반 조성, 도민의 국기사랑과 존중 정신을 일깨우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또한, 추경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추경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전용과 이월, 불용액 등에 대한 관련부서의 과다 예산계상과 업무소홀 등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영양 두들마을 현지 견학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6일 한국의 대표적 여성인물로 존경 받고 있는 '여중군자 장계향'이 살았던 영양 '두들마을' 현지 견학을 가졌다.

장계향은 약 410년 전인 1598년에 퇴계학맥을 이어받은 경당 장흥효의 외동딸로 태어나 시서화에 능했으며, 영희의 재령이씨 가문에 출가하여 7남 3녀를 모두 훌륭하게 성장시킨 여성으로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이 산림(山林)으로 불림을 받아서 이조판서를 지내 정부인의 품계를 받았으며, 이때부터 '정부인 장씨'라 불리게 된 한국의 대표적 여성인물이다.

이번 현지 방문에서 의원들은 음식디미방 전시관·체험관, 유물전시관, 석계고택, 장계향 유허비, 석천서당 등 '장계향'의 삶의 자취 체험 기회를 갖고, 특히 나이 일흔이 넘는 장계향 선생이 자신의 지식을 집대성하여 후손들을 위해 쓴 최초의 실증적 한글 요리서인 '음식디미방' 요리를 시식하는 기회도 가졌다.

채옥주 위원장은 "여성군자 장계향은 인자한 어머니, 현명한 아내, 효심 가득한 딸로서 역할

도민 의사 적극 수렴, 의정활동 기본 충실 한국의 대표 여성인물 알리는 데 노력

을 충실히 하였으며, 재산을 증식하고 나눌 줄 아는 현명함을 보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점은 현대를 사는 후세들의 귀감

과 더불어 본받아야 할 진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북의 여성을 넘어 한국의 여성인물로 알려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 '정부인 장씨' 삶의 자취 현장
2.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회의 장면
3. 장계향 유물전시관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울릉도·독도 경북 지질공원 운영·관리 기반 마련 동해안 해양문화, 해양관광 발전 방안 모색

1. 산림소득 시책 연구
2. 부산국립해양박물관 해양문화시설 비교견학
3.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장면



민생관련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의결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활동기간 중인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1~2차 회의를 통해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사업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사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분 등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한 도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못지않게 신규 단위사업이 많이 늘었으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체육회의 남자하키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운영에 있어 도의회에 사전 보고절차가 누락된 점을 질타하고, 최근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반정부시위와 관련해 안전을 강조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 추진 철회, 독도 관련행사 운영비 감액사례 지적, 이스탄불-경주엑스포 홍보관 설치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울릉도·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시

스템을 구축하고, 지형·지질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박기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경상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 설치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질공원에 대한 보존·관리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안내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을 비롯해 향후 도내 추가로 인증될 수 있는 지질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립해양박물관 전시프로그램 현황 확인

문화환경위원회는 6월 27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부산국립해양박물관을 찾아 해양문화시설의 운영과 전시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상황 등을 비교견학했다.

위원회가 박물관을 방문한 것은 올해 2월 신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됨에 따라 경북에서도 해양발전에 부응하는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국내 처음으로 국립형태의 해양관련 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 현장을 보고 경북 동해안의 특색있는 해양문화 콘텐츠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북은 환동해 중심지인 동해안 천리

를 끼고 있으면서도 서해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남해의 국립해양박물관과 같은 마땅한 국립 해양시설이 없었다.

다행히 경북도에서는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천500억원을 투입, 해양과학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체험을 두루 할 수 있는 종합해양과학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거쳐 현재 예비타당성대상사업 조사 중에 있으며 울진군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날 국립해양박물관을 둘러 본 위원들은 "경북의 동해안 지역은 해양테포즈, 해양휴양시설 등 바다와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국민휴양지로 탈바꿈시키는 체험·휴양형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양분야의 국가적인 연구와 체험·교육기능이 결합된 환동해권역의 국립 복합형 해양관련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동해 및 독도와 연계한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찬걸 위원장은 "우리 경북에서도 환동해 시대를 맞아 동해안권이 가진 해양여건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소속 상임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항상 도민을 먼저 생각하며 소통하고 지역 현장을 살피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수산위원회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제263회 정례회 기간중 6.12~6.13(2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 승인 심사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 했다.

농수산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7,189억 1천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847억 1천6백만원 대비 5% 증액된 341억 9천5백만원 농업기술원 528억 2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20억 6천5백만원 대비 1.5% 증액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일자리창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적극적 의견 개진 현장에서 답을 찾아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농수산위원회에 제안된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농수산위원회에 부의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 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학교무상급식 소위원회 추진상황을 농수산위원들께 보고했다.

현장방문 방문,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제263회 정례회 기간중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산 저농약 친환경인증 시설포도 재배 현장과 포항 호미곶 농촌체험 태양동물농장에 들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산 저농약 친환경인증 시설포도재배 현장에 들러 간단한 현황을 청취한 뒤 시설하우스를 둘러 봤다. 2006년 경북포도 명장 1호, 포도 특화사업단 전문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한 김진수 대표는 거봉, 비앙코, 로자리오 등 1.7ha를 재배하면서 서울, 대구 대형백화점에 계약 납품하고 있으며 연 1억 8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포항 호미곶 농촌체험 태양동물농장에서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농장이야기, 동물의 세계, 몸에 좋은 우유이야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418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은 우리 농촌도 옛날처럼 농경지만을 이용하여 돈버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면서 농촌체험교육을 위한 태양동물농장

어려운 농업 현실 감안, 적극적인 예산확보, 철저한 운영 체험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고소득 농어촌 건설

처럼 마인드가 바뀌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빨리 이러한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상에 앉아 걱정하지 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자며 표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의정활동에 꼭 반영해 나갈 것이며,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



2



3

1. 포항 호미곶 농촌체험 태양동물 농장 현지확인

2, 3. 경산 저농약 친환경인증 시설 포도재배 현지확인

건설소방위원회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현황 점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제26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6월 14일 오전에 칠곡지역 왜관~가산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이날 오후에는 경산 남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을 찾아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위험 우려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추진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는 등 발빠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실시한 현장방문은 최근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대형 공사장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6월 14일에는 왜관~가산간 도로건설현장에서 공사추진 현황 보고를 받고 주변 대형 공사장을 둘러보고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진척상황 등을 직접 확인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공사장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도민의 안전, 재산권 보호 위해 현장의정 활동 강화
지역건설산업 경영활성화 위해 적극 지원

상습 침수위험 우려지역, 현장 의정활동 전개 지역 건설업체 지원방안 모색 현장소통 강화

이어서, 상습 침수위험 등 반복적인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공사중인 경산 남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하천 미개수로 인한 수해상습지를 개선하여 항구적 재해 예방과 수해위험 해소를 가속 보호와 영농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옥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곧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및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현장은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도민의 안전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의정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 18일(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와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국장 이재춘)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경기부진으로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관련제도 등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정책간담회를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두옥 위원장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모든 공사 적용건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소방공사 등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철회 등의 협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의회와 도차원에서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집행부와 함께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1. 경산지역 남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내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척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2. 칠곡지역 왜관~가산 도로건설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척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

명품학교 탈바꿈 위한 기숙형 공립학교 실태 점검 올바른 역사의식 가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

도교육청 결산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과 17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재산 9건으로 이 중 1건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변경안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가결했다.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정전입금의 안정적 확보와 자체수입의 발굴 노력, 과다한 이월사업의 발생 등은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했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선심성·소모성 사업을 배제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 우선순위로 세출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5건 5억 7,131만 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독도 방문, “독도사랑”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실천 결의

교육위원회는 제263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다.

2010년 경상북도의회로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은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여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명품중학교로 탈바꿈하기 위해 울릉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중학교 추진실태를 점검함과 더불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지도자의 역사적 망언을 규탄하고, 학생들의 역사의식 부족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실천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장으로부터 울릉교육의 일 반현황과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학교 통·폐합이란 아픔을 거친다면 최첨단 교육시설과 장비, 우수교원 확보 등 각종 인센티브로 일명 ‘명품 중학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보하여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잘 살려 신설학교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지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전국의 대표모델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기숙형공립중 설립예정지를 비롯해 남양초등과 울릉중학교, 울릉고를 잇따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교를 둘러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밖에도 위원들은 독도를 방문하여 최근 일본 지도자들의 잇따른 역사적 망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역사과목이 대학입시에서 선택과목으로 전략한 이후에 학생들의 역사의식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역사교육 강화”를 촉구하고, “독도사랑, 역사 바로 세우기”에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



1. 독도를 방문하여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 ‘독도 사랑,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실천할 것을 결의
2. 울릉군수로부터 독도명예주민증 수여받음.
3. 남양초등학교 방문하여 시설 둘러보고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집행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성 증대 현장중심 예결위 활동, 도민혈세 낭비요인 없이 철저히 심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차례 회의를 열어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했다.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조 1,116억 43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세출결산액은 6조 5,996억 97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85억 6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7,020억 94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세출결산액은 3조 2,797억 65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산심사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2012년 세입·세출 예산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건전성, 효율성 등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심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사에 이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2013년도 제1회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상북도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의 11건, 19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하여 최종 7조 1,471억원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중 논란이 됐던 공관건립설계비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선심성·낭비성으로 지목된 세출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반면, 취약계층과 서민복지,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경상북도 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예산안도 청사이전 및 리모델링의 3건, 6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한 3조 4,649억원의 추경예산을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경과 결산 심사를 위한 정책간담회와 제주혁신도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위원회 발전 방안도 모색하였다.

윤창욱 위원장은 “도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



1. 예산심사를 앞두고 제주혁신도시 견학을 통해 예산 심의자료 수집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
2. 2013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내 주요사업장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지 현장확인
3. 제263회 경상북도 정례회시 심도 있는 예산심사



도정질문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
대책마련 시급

장영석 의원(구미4)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도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는 총 31개에 달하고, 특히 SSM은 모두 46개소로 2012년 이후 5개소나 더 늘어났다.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점이 2009년 1조 2,710억 원에서 2012년 1조 5,239억 원으로 19.9% 증가한 반면에 도내 전통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실정으로 도내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도내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대책과 관련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문제점과 경북도 일자리창출사업에서도 소외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 유역별 어족자원
복원 위한 대책 강구해야

홍광중 의원(교육4)



낙동강 수변공간은 생태보존 복원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토종 어종이나 멸종위기종에게 닥친 커다란 위기에 대한 대책과 특정 유역에 적응하는 어종들의 대폭 방생 및 기존 어족자원 복원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 중심의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방안과 세분화된 농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신도청이전지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토종 자생식물 중심으로 조경 사업을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물산업, 농업용수
자원 관리 대책

김영기 의원(청송)



물산업과 관련하여 경북을 물산업 핵심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플랜과, 물포럼 개최로 인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물 부족 현황과 대비책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조성 계획 방안은 무엇인지?

저수지와 관련하여 도내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한 보수와 점검에 대한 대책과 수질관리실명제, 환경정화활동 실시에 대한 견해와 관점, 보, 집수암거 등 농업용수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상수도과 관련하여 도내 상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대책과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전부품연구원(시험기관) 설립, 유치 촉구

황이주 의원(울진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한울(울진) 원전의 경우 중기 발생기 저장고 설치 문제, 신울진 원전 1, 2호기 원자로 위치 변경 문제, 지진해일 저감 방안 설계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경주 월성원전도 압력관 교체에 따른 수명 연장, 방폐물 처분장 공기지연, 지하수 발생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전의 74%가 영남 지역에 있고, 특히 울진과 경주는 기존 원전과 더불어 앞으로 도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북도가 직접 원전부품연구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기관 유치를 촉구하였다.

도 산하기관장 임용시스템 변화 요구

박권현 의원(청도2)



경북도는 현재 공기업 및 시도 공동설립기관, 재단법인 등 모두 33개 산하 기관·단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34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산하 기관·단체의 장 가운데 73%인 24개 기관·단체장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 기관·단체 설립은 해당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산하기관·단체를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경영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기관·단체장의 전문성과 능력, 자질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5분자유발언

죽변비상활주로 폐지하고 울진공항 활용

전찬걸 의원(울진1)

국내에 공항이 적고 비행기 제작기술이 미흡하던 1978년도에 7번 국도와 병행하여 이용되면서 비상시 군사용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죽변비상활주로는 북으로 약 1.5km 지점에 한울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중인데 비행기가 이·착륙시 원자력발전소 상

공을 관통하기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여 비상활주로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부적합하다. 남쪽으로 약 39km 떨어진 울진공항이 민간인 비행교육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곳을 비상시 활주로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출석부 명렬(名列)에서 남녀구분 철폐하자

김명호 의원(안동2)

우리의 딸들이 눈곱만큼도 성차(性差; gender differences)에 구애되지 않고, 남성과 동등하게 충분한 자존감으로 진취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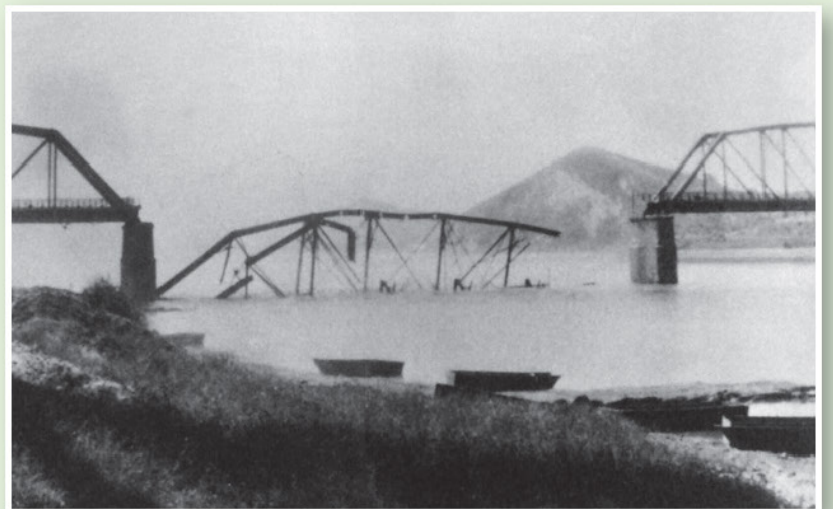
2013년 현재 도내 초등학교 477개교의 출석부 명렬 작성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42%인 200개 학교가 남학

생을 우선하여 앞순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부터는 경북교육청 산하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 및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 더 이상 남녀를 선후로 구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표지사진 6·25전쟁, 파괴된 왜관철교



1950년 8월 3일 8시 30분, 낙동강을 건너오는 북한군을 막기 위해 폭파된 왜관철교, 당시 총 길이 469m 중 왜관쪽 둘째 구간 63m가 끊어졌다.

당시 낙동강을 넘어오는 북한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왜관철교 폭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곳에서조차 적을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철교 폭파 후 아군은 강변에 진지를 구축, 북한군의 전차 도하를 막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진제공 : 다부동전적기념관)



제263회 정례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 이상용 의원 외 5인
제정이유는 자주, 자립, 자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도내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 배수향 의원
제정이유는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국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4대사회와 척결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새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한 총체적인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과 도민이 행복한 선순환 구조의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창조경제산업실」을 설치하고,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통·폐합하는 등 국별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금융권의 저금리기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금 융자이자율을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리증진 사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제출자** : 김영기 의원 외 1인
제정이유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하고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제출자** : 이태식 의원
제정이유는 경상북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규정이다.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제출자** : 나현아 의원
개정이유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생활체육 촉진과 관련한 활동지원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제출자** : 박기진 의원
제정이유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는 드높은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규정이다.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교명변경 및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과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제출자** : 박기진 의원 외 2인
제정이유는 울릉도·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형·지질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발의자** : 이정호 의원 외 2인
제정이유는 최근 어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귀어인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내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발의자** : 정영길 의원 외 10인
개정이유는 농어업인 대상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시장·군수와 도 단위 농업관련 단체장이 직접 추천하여 행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지역의 우수 농어업인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발의자** : 박권현 의원 외 7인
제정이유는 지속적인 농산어촌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 경상북도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 농외소득 증대로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 채옥주 의원 외 2인
제정이유는 관련법에 따른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하고,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 장두욱 의원 외 4인
제정이유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투명한 건설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 한재석 의원 외 5인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에 맞도록 사무명칭 정비 및 회의록 공개시점을 18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정보공개 편의제공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이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 윤성규 의원 외 6인
개정이유는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공개모집 임용하고 대장 연임을 1회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이다.



이제는 진짜 지방분권 시대다

함인석 경북대학교 총장

월드컵의 열기가 한참 뜨거웠던 2002년, 대구는 지방분권 운동으로 더욱 뜨거운 한 해였다. 면적만으로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당시 기준 전체 인구의 47.2%가 집중해 있었으며,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를 발생시켰다. 30대 대기업의 본사 85.5%, 10대 명문대학의 80%, 벤처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당시,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조직되고, 그 해 11월에는 '지방분권 국민운동'이라는 전국 조직이 우리 경북대학교에서 출범했다. 지방자치와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잘 사는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11년이 흘렀다. 지방의회 개원 61주년, 지방자치의 시대 부활 2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방분권은 뜨거운 화두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지방분권 운동은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성공하고 당국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 적지 않은 개가를 올렸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은 8:2에 머물러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역(逆)균형발전 조치도 있었다. 먼 곳을 둘러볼 것도 없다. 수험생들은 대학진학에 있어 그 대학의 교육환경이나 연구성과, 발전가능성보다는 소위 '인 서울' 인가를 우

선 순위로 고려하고,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도권 대학에 진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에서는 취업해 봐야 고만고만한 곳이고, 출세도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어도 지방대학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압축성장을 통하여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정체라는 국가적인 난제를 낳고 말았다. 여기에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 창출과 확산이 국력을 보장하는 지식기반시대가 도래했고, 이에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국가내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노동과 자본에서 기술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식으로 변화하고,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방분권 실현을 향한 길은 멀어만 보인다. 지방분권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첫 걸음은 재정의 분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이 전

체 세금의 80%를 틀어쥐고서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을 통제하는 구조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앙정부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맡기면서 이를 실행할 돈과 사람은 주지 않아가득이나 어려운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사무는 주민의 편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지방에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무'라는 이름하에 국가가 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워 분권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도 큰 과제이다. 지방분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지방에는 자치권, 재정, 인재, 일자리 창출이 한낱 허울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깨달아야 한다.

OECD 선진국의 경우 국가 전체 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율로 전

재정분권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라가고 있다. 지방분권은 21세기 미래의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이다. 지방분권이 만들어 가는 경쟁력 있는 국가, 삶의 활력이 넘치는 지방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참여를 통해 이루어내야 할 일이다. 지방분권 운동의 첫 출발지인 우리 경북대학교도 이런 시대적 책무를 망각하지 않고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 경북대학교의 발전이 지역 혁신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어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다시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



건강칼럼

살인 진드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중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촉발하는 '플레보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평소에는 몸길이가 약 3mm 정도로 매우 작지만 피를 빨면 몸이 약 10mm 까지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참나무진드기중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 감염률은 0.5% 미만이라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진드기에 물린 부위의 중심부는 과사되거나 껍질을 형성하기도 하며 주위에는 점차 붉게 변하며, 부어오

게 된다. 참진드기가 몸에 박혀 피를 빨아 먹는 동안에 물린 부위는 건널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뚜렷하게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진드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피부 노출을 줄이기 위해 긴 옷을 입고, 풀밭이나 숲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토시와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풀밭에 앉거나 누워 쉬는 것은 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풀숲에 앉아 용변을 보는 것 또한 피해야 한다.

진드기가 살 만한 곳에 가야 한다면 외출전 곤충기피제를 뿌리고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살인진드기의 예방법에는 진드기가 싫어하는 시나몬 오일로 천연 계피 스프레이를 만들어 야외활동 전에 분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진드기에 물린 후 잠복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단순 몸살 감기로 넘기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여 물린 자국이 있는지, 의심시 혈청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 대응만 잘 한다면 치사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이다. 김광훈 맥 이비인후과 / 대구시 중구 남산동 ☎ 053-427-7585 🍀



김광훈

맥 이비인후과 원장

본격적으로 좋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마음 편하게 야외 활동을 하기엔 걸리는 것이 있다. 바로 '살인 진드기'. 이것을 통해 중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는 특히 여름철인 5~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에 따라 사계절 중 가장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지만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SFTS 감염의 임상증상으로는 대부분의 환자가 38℃에서 40℃의 고열이 3~10일 동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토와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도 동반한 것으로 관찰된다. 그 외에 두통, 근육통, 의식장애나 경련, 혼수 등의 신경증상, 발열, 기침, 혈뇨 등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내원하여 혈청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 사망자만 따로 분석한 결과, 최초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하기까지 기간이 평균 9일 정도로, 대부분 2주 이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살인 진드기라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는 '급성 고열 증세'를 유발하는 '중



İSTANBUL-GYEONGJU
DÜNYA KÜLTÜR EXPO 2013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경상북도는 2013년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 기 간 : 2013. 8.31 ~ 9.22 (23일간)

• 장 소 : 터키 이스탄불시까지 일원

• 주 제 : “길, 만남 그리고 동행”

• 행사 프로그램(9개 분야 30여개 프로그램)

공 연 _ 한터 전통문화공연·오케스트라합동공연

전 시 _ 한국문화관, 예술교류전

영상·체험 _ 영화축제, 한터 전통문화체험

특 별 행 사 _ K-POP, 세계민속공연축제 등

